

情報化 가속위해 시범사업확대

과학기술처장관 **朴 肯 植**



희망찬 戊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情報通信의 발전에 앞장서 오신 情報通信振興協會 會員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情報化社會의 구축을 통한 先進福祉國家 구현이라는 국가적 課業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產業界, 學界, 研究界 및 政府는 相關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에는 컴퓨터 및 半導體를 비롯한 情報產業 相關기기 수출이 사상 최초로 1백억달러를 돌파하게 되었고, 知的所有權의 일환으로 컴퓨터프로그램 保護制度가 정착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開發促進法”이 制定되는 등 情報產業 全分野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全電子交換機의 개발성공은 우리나라 通信史에 있어 일대 변혁을 불러 일으켰으며 相關 通信산업 전분야에 걸쳐 연구개발노력이 확산, 가속화되는 한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본격화 시킴으로써 情報化社會의 早期構築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위에서 量的인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요창출 및 産業支援施策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質的인 발전을 도모

키 위해 기술개발산업, 標準化 및 專門人力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내실있는 情報產業育成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科學技術處에서는 이미 “2千年代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에서 통신기술을 비롯하여 정보산업관련분야의 기술개발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超高集積반도체개발사업, 행정전산망용 主電算機開發事業 등 大型 연구·개발프로젝트를 國策課題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프트웨어기술의 개발을 위해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인 “슈퍼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情報產業에 대한 汎국가적인 지원·육성을 통해 “제3의 물결”로 지칭되고 있는 情報化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각종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支援體制를 확립하며 情報化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民間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情報通信產業界를 대변하는 情報通信振興協會의 創意的인 노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業界의 여러분에게 만복이 함께하기를...■